

損窩 崔錫恒의 유람에 대한 인식

- ‘壯遊’와 ‘淸遊’를 중심으로 -

유진희*

|| 차례 ||

- I. 서론
- II. 최석항 유람 경험
- III. 壯遊와 淸遊에 나타난 유람에 대한 인식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유람문화가 유행했던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을 살았던 문인인 손와 최석항의 유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석항은 45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 정쟁에 휘말리기도 하였으나 좌의정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10여 차례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지방으로 파견되었음에도 여느 문인들처럼 장기간 특정 지역을 유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최석항이 유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삶과 유람 이력을 살펴보았다. 또 ‘~遊’의 형식의 시어가 삽입된 시를 범주화한 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壯遊와 淸遊에 집중하여 이 시어들이 쓰인 시에서 최석항이 가진 유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먼저 壯遊는 최석항이 관서 암행어사를 나갔을 때 지은 시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경과 가까운 관서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스산한 분위기와 굶은 날씨를 모두 壯遊라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파직된 뒤 3년 만에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다시 관직을 얻은 때이기 때문에 관료로서의 책임감이나 임금에 대한 충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淸遊는 주로 세상과는 단절된 청정한 공간이나 그러한 공간을 상징하고 지은 시 속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또 그러한 공간에서 느끼는 타인과의 유대가 특징적이다. 또 최석항은 자신이 淸遊를 얻은 것이 우연히 부림을 받은 덕분임을 유사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최석항이 인식한 유람은 모두 그 바탕에 관직 생활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관직 생활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유람을 택한 일반적인 당대 문인들과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주제어 : 최석항, 유람, 壯遊, 淸遊

1. 서론

損窩 崔錫恒(1654~1724)이 살았던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은 유람문화가 확산되어 遊山이 하나의 붐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특히 금강산 유람은 많은 문인들이 꿈꾸던 일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회삼아 금강산을 유람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꼭 금강산이 아니더라도 장기간동안 특정 지역을 유람하는 것이 이 당시의 유행이었다. 최석항은 소론계열의 문인으로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71세에 세상을 뜨기까지 약 45년 동안 숙종대의 환국을 비롯한 정치적인 사건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경종대의 노·소론간의 반목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굴곡진 삶을 살았다. 최석항은 45년간 벼슬살이를 하면서 10여 차례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의 물색을 느끼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대의 여느 문인들처

럽 특정 지역을 오랫동안 유람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간간히 각 지역의 명소에서 시를 지은 것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유람이 유행을 하던 이 시기를 살았던 최석항이 유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최석항의 삶과 그의 유람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또 그가 지은 문장을 통해 그가 생각한 유람의 일면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遊’의 형식으로 쓰인 시어를 정리하여 범주화하고 그 가운데 특히 빈번하게 쓰인 壯遊와 淸遊에 집중하여 이 시어가 쓰인 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석항의 관직 생활과 유람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최석항에 대한 연구는 「損窩 崔錫恒 「請對」의 설득 전략과 의미」¹⁾와 「損窩 崔錫恒의 聯句詩 研究 - 詩會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²⁾, 「損窩 崔錫恒의 卽興詩 연구 - ‘口號’류를 중심으로-」³⁾ 세 편의 논문이 제출된 것이 전부이다. 최석항의 『損窩遺稿』에는 676제 825수의 시와 135편의 상소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체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최석항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의 문학세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연구이기는 하나, 이것으로 최석항이라는 인물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의 문학세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1) 윤재환, 「損窩 崔錫恒 「請對」의 설득 전략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2020.

2) 유명석, 「損窩 崔錫恒의 聯句詩 研究 - 詩會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3) 김효정, 「損窩 崔錫恒의 卽興詩 연구 - ‘口號’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2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이 있다. 때문에 본고는 최석항이라는 인물과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장하는 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람문화가 시대를 풍미하던 당시에 최석항이 가진 유람에 대한 인식이 여느 문인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최석항 유람 경험

최석항은 45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말년에는 趙泰耆 · 李光佐 · 柳鳳輝와 함께 소론 4대신으로 불렸다. 그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4차례의 복관과 추탈을 겪었을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다. 이처럼 다분히 관료적인 삶을 살았던 최석항이지만 산수 유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평소 한번 풍악을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세상일에 끌려다니며 끝내 이루지 못하고 때로 비로봉과 만폭동을 왕래하고 배회하는 꿈을 꾸었다. 또 선배들의 遊山錄을 보고 일찍이 눈이 뜨이고 마음이 끌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⁴⁾

이 글은 洪重聖이 1722년 금강산을 유람하고 온 뒤 「楓岳錄」⁵⁾을 엮었는데 이에 최석항이 써준 글이다. 1722년은 최석항이 69세로 세상을 떠

4) 崔錫恒, 「題洪君則蓬萊錄後」, 『損窩遺稿』 卷12, “不佞生平有一見楓嶽之願, 而世故牽, 迄未遂焉, 有時夢想往來徘徊於毗盧萬瀑之間. 又見前輩遊山錄, 未嘗不眼開神遣也.”

5) 최석항의 글 제목은 「題洪君則蓬萊錄後」으로 되어 있으나, 홍중성의 문집 『芸窩集』 卷3에는 1722년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들이 「楓岳錄」으로 엮여 있다.

기 2년 전의 일이다. 이때까지 최석항은 금강산 유람을 꿈꾸었지만 세상 일에 묶여 끝내 실행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석항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가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석항은 1680년에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처음 벼슬을 시작하였다. 1684년에 김환과 이익을 탄핵한 일로 파직되었다가, 1686년에 관서지역에 암행어사로 나가게 되면서 복직하였다. 이후 정언·지평·부수찬 등 중앙직을 맡다가 1689년 기사환국으로 호서 경시관으로 좌천되었다. 이후 1690년, 1691년에는 양천현령·고양 군수 등 지방직을 맡았다. 1694년에는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힘을 얻었다. 1693년에 아버지 崔後亮이 세상을 떠나고 상을 마친 최석항은 1696년 다시 중앙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석항은 나이 든 어머니의 봉양을 이유로 3년간 옥천 군수로 있으면서 옥천에 머물렀다. 1699년 다시 중앙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체직을 요청하다 이듬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고, 1702년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1703년 개성 유수·평안도 관찰사를 맡게 되면서 다시 서울을 떠났고, 1705년에야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대사헌·대사성을 거쳐, 형조·이조·병조 판서 등을 역임하다 1715년에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병신처분으로 인해 소론은 힘을 잃었고, 최석항은 강화 유수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경종이 즉위한 뒤에는 영인군의 왕세제 建儲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辛壬土禍로 노론과 반목하였다. 또 노론계열에서 경종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였다는 睦虎龍의 고변을 계기로 벌어진 壬寅獄事에서는 완론의 입장에서 준론과 대립하였다. 이러한 정국에서 최석항은 소론 4대신의 한 명으로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⁶⁾

6) 최석항의 노년기 정치적 행보에 관한 내용은 윤재환의 논문 중 ‘II. 경종대 정국과

최석항은 사적인 목적으로도 지방이나 근기 지역을 다닌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롯이 유람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많지 않다. 1679년 최석항은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천을 방문하였고, 1681년, 1682년, 1683년에는 충청북도 제천을 방문하였다. 1685년에는 온천을 위해 길을 떠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⁷⁾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다. 1689년에는 큰형 최석진, 조카 최창대와 함께 북한산을 유람하였다. 1691년 고양 군수로 있을 때는 연안 부사로 있는 형 최석정을 만나러 다녀오면서 개성을 방문하여 박연폭포나 화담서원과 같은 곳을 방문하여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연안에서 돌아온 후에는 조카 최창대와 함께 윤순·백세채를 방문하고 박태유·박태보 형제의 묘에 다녀오면서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등지를 유람하였다. 1692년에는 7월과 8월 두 차례 북한산의 민지암을 유람하였다. 1693년에도 북한산의 중흥동에서 최석정·이하영 등을 비롯한 사람들과 함께 수창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697년에는 옥천 군수로 있으면서 나주의 대곡서원과 보은의 상현서원에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최석정이 자신의 임지 밖으로 멀리 벗어난 일로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또 1703년에 개성 유수가 되었을 때는 박태순과 이현조를 초대하여 개성의 천마산을 유람하였다. 1709년과 1710년에도 북한산에서 지은 시가 있어 북한산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문인들 사이에 유람문화가 확산되었고,⁸⁾ 조정

손와 최석항' 참고(윤재환, 앞의 논문)

7) 崔錫恒, 「葛院滯雨」, 『損窩遺稿』 卷2, “溫泉之行, 過此逢雨留半日.”

8) 이상균은 조선시대에 유람문화가 발달하는 요인으로 1)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유람 문화가 조선에 유입된 점, 2) 교통망의 발달과 유람정보의 섭렵이 前代보다 쉬워진 점, 3) 조선시대 문인들이 문예취향을 즐기기 위해 산수유람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의 관료들은 환로의 피로함을 호소하고 휴식을 원하면서 유흥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⁹⁾ 여행은 장기화되었고, 금강산 유람은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가장 가까운 예로 1691년에 최창대는 최석항과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등지를 유람한 후에 바로 외숙인 이인엽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였으나,¹⁰⁾ 이때 최석항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최석항 주변의 많은 문인들이 금강산을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석항은 금강산을 다녀오지 못하였다.¹¹⁾ 최석항이 강원도에 부임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석항은 충청도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평안도 관찰사와 경상도 관찰사로 그 지역에 몇 년간 머물렀지만 그곳에서도 특정 지역을 오랫동안 유람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간간히 각 지역의 명소에서 시를 지은 것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온천을 갔다오거나, 천마산을 유람하기도 하였으나 최석항의 유람은 대부분이 북한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최석항은 자신의 유람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글로 남겨두기도 하였다.

했다는 점, 4) 당면한 정치적 현실로 인해 사대부들이 강호에 退處하여 산수를 애호하며 즐겼다는 점을 들었다.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13~15.)

9)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관료문인의 산수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1.

10) 崔昌大, 「同季舅遊楓嶽, 到平丘, 得通字」, 『昆侖集』卷2. 최석항이 1691년에 지은 시 가운데 「題李文叔東遊錄」이 있어 이인엽의 형 이인병도 당시에 금강산을 유람한 것으로 보이나, 이 둘과 함께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1) 최창대와 이인엽, 이인병 외에 같은 시기 소론 계열 문인 가운데 吳道一(1645~1703)은 1695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금강산을 다녀와 「關東錄」이라는 시록을 엮었으며, 趙泰億(1675~1728)은 1709년 철원부사로 있을 때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시를 남겼다.

(1) 무릇 유람의 아름다움은 두 가지가 있으니 그윽함과 광활함 뿐이다. 그렇지만 그윽하고 느긋한 것은 간혹 넓고 광활한 것에 흠이 있고, 탁 트이고 넓은 것은 대체로 깊고 그윽한 정취가 부족하다. 두 가지를 아울러 갖춘 지극한 곳을 천하에서 구하자면 또한 드물 것인데, 내가 보고 기억하는 곳으로는 옥주의 환선루만이 거의 가깝다. ……(중략)…… 예전 기사년(1689년) 봄에 내가 시험을 관장하는 일을 맡아 이곳을 지나면서 이 누대에 한번 올라 시를 남기고 갔었다. 8년 뒤 경자년(1696년) 겨울에 조정에서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이 고을에 오게 되어 일을 처리하는 여가에 누대에 올라 읊으며 지난날의 유람을 이었으니, 이는 곧 부처가 말한 과거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¹²⁾

(2) 지난 을유년(1705년) 가을을 떠올려보니 평안 감영에서의 임기가 다 된 후에 성천을 순도하였는데, 이때 정협(鄭悵, 1642~?, 可叔은 그의 자)이 부백이 되었다. ……(중략)…… 마침 중추를 맞아 서리맞은 단풍과 이슬 내린 국화가 구름 비단같이 찬란하여 마침내 정협과 함께 누관에 오르고 배를 타며 한 시절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즐거움을 다하였다. 부르고 화답하여 근체시와 절구를 아울러 10여 수 지었으니 이는 서쪽으로 온 뒤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그 후 10년, 강선루는 회록의 재앙을 입어 재가 되어 버렸다. 정협은 늙고 병들어 해곡에 떨어져 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고, 나 역시 사람들의 비방에 곤욕을 치러 문을 닫고 병석에 누워 지난 유람을 회상하니 황홀하기가 하룻밤 꿈같았다. 지난날의 마음 기쁘고 유쾌한 일을 어찌 얻을 수 있을까. 이를 적어 기록하노라.¹³⁾

12) 崔錫恒, 『喚仙樓記』, 『損窩遺稿』卷12, “大凡遊觀之美有二, 奧與曠而已. 然幽深窈窕者, 或欠寬曠之趣, 軒豁爽塏者, 多乏蘊奧之致, 兼備而兩至者, 求之天下, 盖亦鮮矣, 以余所觀記, 唯沃州之喚仙樓, 殆庶幾焉. …… 昔在己巳春, 余有掌試之役, 行過此地, 盖嘗一登斯樓, 留詩以去. 後八年丙子冬, 乞符於朝, 適莅是州, 簿書之暇, 登臨嘯詠, 以續舊日之遊, 則佛氏所謂宿世緣果者非耶. 是不可以無識.”

13) 崔錫恒, 『仙樓酬唱詩跋』, 『損窩遺稿』卷12, “念昔乙酉秋, 箕營報瓜之後, 逕到成川, 時鄭侯可叔爲府伯. …… 適值仲秋, 霜楓露菊, 爛然如雲錦, 遂與可叔登樓泛舟, 極一時遊觀之樂. 有唱斯和, 賦近體絕句並十餘首, 此殆西來後未嘗有也. 其後十年,

(1)은 최석항이 1698년 옥천군수로 있을 때 지은 「喚仙樓記」이다. 환선루는 옥천과 영동 사이에 금강으로 흘러드는 호수에 있었다고 한다. 당대의 많은 문인들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기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최석항은 ‘유람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그윽함과 광활함이 그 두 가지인데 환선루만이 그 두 가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석항이 환선루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89년 호서 경시관이 되었을 때이다. 이 해에 최석항은 환선루에서 느껴지는 도가적 탈속감을 시로 읊기도 하였다.¹⁴⁾ 최석항은 1696년 어머니의 봉양을 이유로 옥천 군수로 부임하였다. 옥천 군수로 있으면서도 최석항은 환선루에 방문하여 시를 짓고,¹⁵⁾ 기문을 지어 환선루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최석항은 몇 해 전 방문했던 환선루에 다시 오른 것을 과거의 인연을 맺었다고 표현하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는 최석항이 1705년 평안도 관찰사의 임기를 다하고 돌아올 때 강선루에서 정협을 만나 유람했던 일을 추억한 「仙樓酬唱詩跋」이다. 최석항은 1703~1705년까지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다. 이 발문을 지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이 유람이 있고 10년은 더 지난 시기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년에 지난날을 회상하며 기쁘고 유쾌한 일로 이날의 일을 꼽았다. 최석항은 임기가 끝나고 성천을 지나면서 마침 좋은 때를 만나 성천 부사로 있던 정협과 중추에 만나 강선루에 오르기도 하고, 강선루의 비류강에 배를 띄우고 가을의 단풍과 국화를 감상하기도 하며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 최석항은 이 일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고서

降仙樓災於回祿，已成灰燼，可叔年老病廢，落在海曲，存亡不可知，余亦積困人言，閉門淹病，回思舊遊，恍如一夢。向來賞心愉快之事，其可得耶。書此而識之。”

14) 崔錫恒, 「喚仙樓, 次板上壺谷韻」, 『損窩遺稿』卷1.; 「喚仙樓次韻」, 『損窩遺稿』卷2.

15) 崔錫恒, 「喚仙樓感吟, 用前韻」, 『損窩遺稿』卷3.

없었던 일이고 이때의 유람이 아주 특별했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글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의 유람을 담고 있다. 최석항은 환선루 외에 담양의 도담이나 여주의 신록사나 청심루, 북한산의 보허각이나 청담과 같은 지역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시를 남겼다. 하지만 환선루에서는 다시 방문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지역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시를 짓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글로 남겨 재방문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공무로 두차례 방문하게 된 환선루이다. 평안도 성천에서의 유람 역시 평안도 관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즐긴 것이다. 북한산이나 다른 곳에서도 시를 수창하기도 하였으나, 최석항은 특히 이때의 기억을 추억하며 꿈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최석항에게 인상깊었던 유람이 대체로 관직 생활을 하는 부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빈도 역시 잦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석항은 자신의 임지를 벗어나 오랫동안 유람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관직 생활로 이동하면서 보고 겪은 일들을 유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최석항이 생각한 유람의 바탕에는 관직생활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III. 壯遊와 淸遊에 나타난 유람에 대한 인식

본고에서는 최석항의 문집 『損窩遺稿』에서 최석항이 가진 유람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 시를 살펴보기 위해 ‘~遊’의 형식¹⁶⁾으로 된 시

16) ‘遊’가 동사로 쓰인 경우나 유람과 관계없는 교유시나 만시의 경우를 제외하였다. 동사로 쓰인 경우 유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만시에는 상대방과의 추억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고, 교유시의 경우 유람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이나 일

를 정리해 보았다. 최석항의 인식한 유람을 살펴보기 위해 그의 유람시를 모두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가 가진 인식을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범주화하여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遊’의 형식으로 된 시어가 나오는 시를 정리해보면 총 36수의 시로 확인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	시제	방문 시기	분류	시제	방문 시기
清遊	百祥樓 有愷亞使俞大叔	관서 암행어사	舊遊	碧瀾渡口呼	최석정 방문
	秋盡日 登龍山口號	양천 현령		降仙樓 書贈鄭使君可叔	평안도 관찰사
	回龍寺 次前韻	박세당·윤증 방문		步虛閣用前韻	
	題克嶺上人禪卷	오관산 절제 제관	倦遊	登滄浪亭	귀근
	大谷書院感吟	옥천 군수		朝過朴淵洞口	최석정 방문
	雙溪學士堂 又次前韻 贈敬賢上人	경상도 관찰사	閑遊	受降亭 次金從事起宗韻	관서 암행어사
	文城館 和示順安宰李伯瞻	평안도 관찰사		途中口占	강화 유수
	白鷺洲口占	경기도 관찰사	漫浪遊	秋盡日 登龍山口號	양천 현령
壯遊	鳥嶺	실록 봉안		書回龍上人詩	박세당·윤증 방문
	夜坐無寐 信筆書懷	관서 암행어사	娛遊	大谷書院感吟	옥천 군수
	國水峴小坐	관서 암행어사	遠遊	老親初度日書感	관서 암행어사
	次立巖韻	관서 암행어사	汗漫遊	沸流江舟中	평안도 관찰사
	受降亭 次金從事起宗韻	관서 암행어사	爛漫遊	次韻晦卿	
	碧瀾渡口呼	최석정 방문	爛漫遊	降仙樓口號	평안도 관찰사
	宿晦雲菴	박세당·윤증 방문	赤壁遊	次試院酬唱韻	평안도 관찰사
	宣城野酌	실록 봉안	貴价遊	步虛閣用前韻	
勝遊	象賢書院 留別興師	옥천 군수	優遊	隱仙洞 用詩刪韻	
			物外遊	白鷺洲口占	경기도 관찰사
			神遊	登壘城臺口占	강화 유수

반적인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아울러 ‘此遊’나 ‘茲遊’와 같이 특별한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제외하였다.

총 36수의 시 가운데 관서 암행어사로 있으면서 지은 시 7수,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지은 시 5수를 비롯하여 28수의 시가 최석항이 지방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지방으로 파견되었을 때 지은 시이다. 최석항이 지방으로 파견된 것은 10여 차례가 되며, 그 기간이 약 13년의 시간이 된다. 최석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기간동안 특정 지역을 유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풍경을 접하며 그것을 하나의 유람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석항의 시에서도 관료로서의 책임감과 유람의 흥취가 뒤섞여 나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遊’의 시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娛遊・遠遊・汗漫遊・爛漫遊・爛熳遊・赤壁遊・貴价遊・優遊・物外遊・神遊가 각 1회, 倦遊・閑遊・漫浪遊가 각 2회, 勝遊・舊遊가 각 3회씩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壯遊는 6회, 淸遊는 8회로 비교적 빈번하게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석항이 壯遊와 淸遊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壯遊와 淸遊에 집중하여 이 시어들이 쓰인 시에서 최석항이 유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변방에서의 책임감을 드러낸 ‘壯遊’

위의 표를 보면 최석항이 淸遊 다음으로 많이 쓴 것이 壯遊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석항은 총 6차례 壯遊라는 시어를 썼는데, 이 가운데 4번이 1686년 관서 암행어사를 나갔을 때 지은 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석항은 관서 암행어사로 약 3개월 동안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를 다니면서 34제 38수의 시를 지었다. 이는 최석항이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근

교를 유람을 하면서 지은 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석항은 적지 않은 수의 시를 남겨 이때의 기억이 인상깊은 것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최석항은 이때 지은 38수의 시 가운데 7수의 시에서 ‘~遊’의 시어를 삽입하였는데, 이 중에 4번이 壯遊이다. 최석항은 이때 산삼캐는 사람과 변방의 사정을 염찰하고자 나간 것¹⁷⁾인데, 이때 최석항의 아들 崔昌億이 지은 행장을 보면 “병인년(1686년)에는 관서 안렴의 명이 있었다. 관서의 길은 아득히 멀고 산천은 높고 좁아서 다닐 때에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 이전의 관리들은 큰 길로만 다녔다. 하지만 공은 진심 전력으로 어렵고 험한 곳도 피하지 않아 깊은 산과 궁벽한 골짜기까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보지 않는 곳이 없었고, 항상 밤까지 혼자 다녀 사냥꾼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하였다.”¹⁸⁾라고 하여 최석항이 얼마나 낯선 길을 다녔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최석항이 지방관이 되어 이전의 관리들과는 다르게 벽지에 있는 백성들까지 살폈다는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시 최석항이 지은 시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 관료로서의 책임감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최석항은 1684년 김환과 이익을 탄핵한 일로 파직되었다가, 이때 관서 암행어사를 맡으면서 복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최석항은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한편 관서 암행어사로 평안도의

17) 『肅宗實錄』卷17, 12년 7월 7일 2번째 기사 “分遣崔奎瑞, 崔錫恒, 洪受濂于西北江邊, 使之廉察採蓼人及邊上事情.”

18) 崔昌億, 「行狀」, 『損窩遺稿紀實』, “丙寅, 有關西按廉之命. 西路闊遠而山川峻狹, 往來有人跡所不到關西按廉之命, 西路闊遠而山川峻狹, 往來有人跡所不到處, 自前繡衣, 皆從大路而行. 公盡心殫力. 不避艱險, 深山窮谷, 無遠不到, 常夜獨行, 遇獵夫幾殆.”

벽지를 돌아다니는 상황을 하나의 유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최석항이 이 때 지은 시 속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최석항은 이 상황을 壯遊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 해가 저무는 변방 성엔 이슬 서리 가득하고	歲晏邊城霜露稠
밤 깊자 무명옷에 한기 스미네	夜深寒透木綿裘
만리 뻗은 변방 하늘에는 근심 어린 달이 뜨고	塞天萬里愁邊月
삼경의 들 수자리에는 끝내 가을이 들었네	野戍三更遂裡秋
기러기는 오지 않은 채 구름만 아득하고	旅雁不來雲緲緲
고향 산은 어디인지 꿈처럼 아득하지만	故山何處夢悠悠
먼 길 다니는 일 꺼리지 말라	長途跋涉休相憚
그래도 산하의 장한 유람하게 되니	猶得關河辦壯遊 ¹⁹⁾

이 시는 최석항이 관서 암행어사로 평안도를 다니면서 쓴 시이다. 이 시 바로 뒤에 수록된 시가 「國水峴小坐」인데, 국수현이 평안북도 의주의 지명임을 감안한다면 이 시 역시 의주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시의 수련~경련을 보면 황량하고 쓸쓸한 변방의 풍경이 묘사되어 최석항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석항이 관서 암행어사의 명을 받은 것은 7월의 일이다. 아직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 묘사된 계절은 한겨울을 방불케 한다. 가을밤 변방은 벌써 이슬 서리가 가득하고 무명옷을 입어도 한기가 스미는 날씨다. 끝없이 펼쳐진 변방의 하늘에는 달이 떠있고 밤 깊은 수자리에는 가을이 들었다. 최석항은 여기서 달을 근심 가의 달이라고 하여 자신이 느끼는 심사를 달에 대입하였다. 경련에서도 최석항의 감정은 그대로 이어진

19) 崔錫恒, 「夜坐無寐, 信筆書懷」, 『損窩遺稿』 卷2.

다. 함련에서 근심이 강조되었다면 경련에서는 외로움이 두드러진다. 소식을 전해줄 기러기는 오지 않고 구름만 아득하게 하늘을 뒤덮고 있으며, 고향은 어디인지도 알 수 없게 꿈처럼 아득하다. 가을에 느끼는 쓸쓸한 감상이 수련에서 경련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심사는 마지막 두 구에서 반전된다. 황량한 변방에서 홀로 외롭게 가을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이 길이 고되기만 한 것은 아님을 미련에서 밝히고 있다. 먼 길을 다니는 것이 힘들고 외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장한 유람[壯遊]’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자신이 공무로 이곳에 파견되었고, 그곳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니지만 평안도 변방 지역의 풍광은 자신이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유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변방의 시짓는 나그네 장한 유람을 시로 읊자니	詞客邊頭賦壯遊
눈 앞의 광경이 시 짓는 시름으로 드네	眼前光景入詩愁
변방에는 밤새도록 끊임없이 비가 오더니	無端關塞終宵雨
시내와 산의 온갖 나무들은 문득 가을을 맞았네	忽作溪山萬樹秋
천리를 되려 멀리 바라보다	千里■■還望遠
그윽한 흥취에 지팡이 짚고 다시 물가에 임하니	一筇幽趣更臨流
아름다운 풍경 마주할 때마다 도리어 한으로 남는 것은	每逢佳境翻遺恨
세상일이 사람을 몰아 잡지도 머물러 두지 않아서이지	世故驅人不暫留 ²⁰⁾

이 시는 「夜坐無寐, 信筆書懷」의 바로 뒤에 수록된 시이다. 수련에서는 자신을 시짓는 나그네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광경을 시로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앞 시의 ‘장한 유람[壯遊]’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

20) 崔錫恒, 「國水峴小坐」, 『損窩遺稿』 卷2.

지고 와서 관서 암행어사로서 곳은 길을 찾아다니는 것을 하나의 유람으로 여기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또 이것을 시로 읊어 남기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다. 함련에서는 국수현에서 보고 있는 풍경을 시로 읊고 있다. 앞의 시에서 최석항은 변방의 날씨를 이슬 서리가 내려 한기가 스미는 날씨라고 묘사하였다. 여기서도 변방에 밤새도록 비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비는 시내와 산의 나무에 가을을 들게 한 비이다. 이 시기에 지은 「登延平嶺」²¹⁾에서는 변방의 날씨를 “하루 종일 바위 여울은 개었다 또 비가 오고, 양쪽 산과 숲은 낮인데도 항상 어둡하네[終日石灘晴亦雨, 兩邊山木晝常昏.]”라고 묘사한 바 있는데, 이로 보아 이 시에서 가을을 들게 한 비도 역시 단비같은 생명력을 지닌 비가 아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경련에서는 시를 짓는 흥에 취한 최석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구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 구절에서 최석항이 멀리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먼 곳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다 흥에 취해 지팡이를 짚고 물가에 이르렀다. 여기서의 흥취는 시를 짓는 흥취인데 이 흥은 미련에서 한스러움으로 남게 된다. 아름다운 풍경을 다 시로 읊고 싶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한으로 남게 되는 것은 세상일에 치여 시를 지을 만큼의 여유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일이 사람을 몰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견 壯遊를 즐기는 유람객이기는 하지만 임금의 명으로 파견된 관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더 우선 시되고, 그것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최석항이 새로운 풍경을 시로 읊고자 하는 유람객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것보다 더 큰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崔錫恒, 「登延平嶺」, 『損窩遺稿』 卷2.

변방의 가을 날 물색 넉넉하고	關塞三秋物色餘
장한 유람 가는 곳마다 기운은 하늘로 솟는 듯한데	壯遊隨處氣凌虛
나그네 길 소식 편지 보낼 기러기 없지만	音徽客路書無雁
관청 주방의 풍미로 먹을 생선이 있네	風味官廚食有魚
수자리는 지금 드문드문 경비를 서고	鎮戍至今疎警備
산하는 예부터 커다랗게 벌여져 있으니	山河從古大鋪叙
미천한 신하 따로 누대에 오르는 감상 있으니	微臣別有登樓感
끝없는 변방 구름 속에 임금 사는 곳 바라보네	極目邊雲望帝居 ²²⁾

이 시는 「次立巖韻」 2수 가운데 첫 번째 수로 앞의 두 수의 시보다 조금 뒤에 편차되어 있다.²³⁾ 이 시는 평안북도 강계에서 지은 시인데, 이로 보아 최석항이 의주에서 강계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도 역시 최석항은 관서 암행어사로 다니는 것을 ‘장한 유람[壯遊]’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련에서는 자신이 다니는 이 곳이 변방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유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넘친다고 하였다. 함련에서는 자신의 소식을 전할 기러기가 없음을 말한다. 기러기가 오지 않을 만큼 먼 변방임을 말한 것이다. 그래도 관청의 주방에 먹을 생선이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한다. 경련에서는 변방의 경관을 보여준다. 수자리에서는 드문드문 경비를 서고 산과 강은 예전부터 탁 트여있었다. 하지만 최석항이 누대에 오르는 것은 이러한 경관을 감상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 올라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신하가 가지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석항이 관서 암행어사를 맡게 된 것이 1684년에

22) 崔錫恒, 「次立巖韻」, 『損窩遺稿』 卷2.

23) 「國水峴小坐」와 「次立巖韻」 사이에 「有感」, 「老親初度日書感」, 「夜坐書懷」, 「江界客舍, 次板上韻」 네 수의 시가 편차되어 있다.

파괴되었다가 관서 암행어사를 맡으면서 복직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시구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변방의 험준한 곳이기는 하나 임금의 명으로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한 유람[壯遊]’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방의 형승 강물을 벤 듯한 데서	關防形勝枕江流
예로부터 시인들은 근심을 풀지 못하였는데	終古騷人不盡愁
구월 가을의 끝없는 경치 두루 둘러보려	歷覽九秋無限景
천척 가장 높은 누대에 올라보네	登臨千尺最高樓
성 꼭대기의 뿔피리는 추운 계절 재촉하고	城頭畫角催寒序
관문 밖 바람 안개는 장한 유람으로 드는데	關外風烟入壯遊
한밤중 마음 쓰이는 일 따로 있으니	別有中宵關念事
근래에 백성들 가림주구에 시달리는 것이지	邇來民物困誅求 ²⁴⁾

이 시는 「次立巖韻」 다음에 편차된 시로 평안북도 강계의 압록강가에 있는 受降亭에서 지은 것이다. 변방의 강가에 있는 정자에서 시인들은 각기 자신의 근심을 풀고자 시를 남겼다. 최석항도 가을의 경치를 구경하고자 정자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경련에는 강계에서 느껴지는 변방의 이미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먼저 성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뿔피리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로 변방의 느낌을 느껴지게 한다. 아직 가을이기는 하지만 변방의 날씨는 앞의 시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겨울에 가깝게 느껴진다. 뿔피리 소리는 추위를 재촉한다고 하여 변방의 추위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구절에서도 변방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관문 밖의 바람과 안개 역시 최석항이 변방에 있음을

24) 崔錫恒, 「受降亭, 次金從事起宗韻」, 『損窩遺稿』 卷2.

알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이 변방의 바람과 안개가 ‘장한 유람[壯遊]’으로 든다고 하였다. 최석항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험준한 공간과 곳은 날씨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유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변방의 곳은 날씨를 자신의 유람의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이 유람보다 더 신경쓰이는 것은 백성들이 가림주구에 시달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최석항이 관서 암행어사로 변방을 다니는 것을 유람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그 보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관료로서의 책임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석항은 관서 암행어사로 평안도의 변방지역을 염찰하였는데 변방의 스산한 분위기와 곳은 날씨를 모두 ‘장한 유람[壯遊]’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료의 신분으로 떠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편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는 1684년에 파직된 이후 2년만에 복직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문경의 새재에서 지은 시에서는 “공무로 가는 길 또한 장한 유람이네[官程亦壯遊]”²⁵⁾라고 하여 관료로 떠나는 길도 壯遊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2. 청정한 공간에서 타인과의 유대를 나타낸 ‘淸遊’

최석항이 ‘~遊’의 형식으로 가장 많이 쓰인 시어를 살펴보면 淸遊가 8회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淸遊가 들어가는 최석항의 시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먼저 공간적인 특징으로

25) 崔錫恒, 「鳥嶺」, 『損窩遺稿』卷5.

대부분이 大谷書院과 같은 서원이나 도봉산의 回龍寺, 개성의 大興寺 같은 사찰에서 지은 것으로 일반적인 생활공간과는 분리된 공간에서 지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百祥樓, 龍山, 佛靈山, 白鷺洲 같은 자연의 청정함과 아름다운 경관이 강조되는 공간에서 시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타인과의 교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百祥樓 有懷亞使俞大叔」은 俞集一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이고, 「回龍寺 次前韻」은 최창대의 운자에 차운한 것이며, 「題克崙上人禪卷」은 극령 스님의 요청으로 최석정의 시에 화답한 것이다. 「雙溪學士堂 又次前韻 贈敬賢上人」은 敬賢이라는 스님에게 준 시이고, 「文城館 和示順安宰李伯瞻」도 順安 縣令으로 있었던 李伯瞻이라는 인물에게 화답한 시이다. 淸遊가 쓰인 8수의 시 가운데 최석항이 1691년에 최창대와 함께 박세당과 윤증을 방문하고 도봉산과 수락산을 유람하면서 지은 「回龍寺 次前韻」의 한 수를 제외하면 모두 경상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등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지은 시이다. 때문에 이 시들에서도 최석항이 자신을 온전한 유람객이 아닌 관료로 인식하는 모습들을 상당 부분 포착해 낼 수 있다.

(1)

걸음마다 더디게 가을산에서 승경 찾으며	探勝秋山步步留
우연히 부림을 받아 맑은 유람 즐기니	偶因形役賭淸遊
세상 재미에 흥미 없는 내 병을 가여워하고	關珊世味憐吾病
선기 적막한 그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네	寂寞禪機羨爾休
한가한 날 다시 은빛 폭포 길을 찾으니	暇日重尋銀瀑路
묵은 인연 그래도 벽란도의 뱃놀이를 기억하여	宿緣猶憶碧瀾舟
전처럼 절문 밖에서 한번 웃는데	依然一笑沙門外
그윽한 회포 넓어서 거둘 수 없으니 어떡하겠나	爭奈幽懷浩不收 ²⁶⁾

(2)

서쪽 변방 관방의 제일가는 고을에서	西塞關防第一州
우연히 부림을 받아 맑은 유람 누리니	偶因形役博淸遊
무산의 비구름 시 읊는 속으로 들고	巫山雲雨吟邊落
태백산의 안개 놀도 한눈에 다 보여지는 듯하네	太白烟霞望裏收
그동안의 지방관 생활 특별한 뜻 없었는데	原隰向來無意緒
오늘 밤의 수창은 또한 풍류이니	唱酬今夕亦風流
길에서 풍경 바뀌는 것 깨닫지 못하다가	途中不覺光陰改
계절은 가만히 맥추에 가까워 오네	節序居然近麥秋 ²⁷⁾

(3)

근처의 골짜기 명승지라 곱고 그윽한데	近峽名區靚且幽
우연히 부림을 받아 맑은 유람 즐기니	偶因形役博淸遊
층진 벼랑 끊어질 듯 가파른 바위 서 있고	層崖斗截巉岩立
두 줄기 강물 가로로 나뉘어 구불구불 흘러	二水橫分屈曲流
나그네는 몇 번이나 터 잠을 생각했을 것이고	行客幾回思卜築
조물주는 여기서 다듬고 조각하길 다했지만	化翁於此極雕鏤
달리고 달려 또 양주길을 향해야 하니	驅驅又向楊州路
수레 반나절 머무름을 허락하지 않네	不許幃帷半日留 ²⁸⁾

(1), (2), (3)은 각각 1692년 개성, 1705년 영변, 1715년 포천에서 지은 시로 지은 시기와 장소가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淸遊가 쓰인 구절을 보면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2)와 (3)은 2구가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며 (1)도 5번째 글자 하나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²⁹⁾ 그리고 이

26) 崔錫恒, 「題克嶺上人禪卷」, 『損窩遺稿』 卷3.

27) 崔錫恒, 「文城館, 和示順安宰李伯瞻」, 『損窩遺稿』 卷4.

28) 崔錫恒, 「白鷺洲口占」, 『損窩遺稿』 卷4.

29) 이 외에 「秋盡日, 登龍山口號」의 2구 ‘偶逢佳境博淸遊’, 「回龍寺, 次前韻」의 2구

세 수의 2구에 담긴 내용은 形役으로 ‘맑은 유람[淸遊]’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임금의 명을 받고 부림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을 맑은 유람이라고 하였다. 앞의 壯遊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최석항은 관료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도 하나의 유람이라고 여긴 것이다. 다만 앞에서는 변방의 험한 곳에서 자신의 유람을 壯遊라고 인식한 반면 이 공간에서 지은 시들은 淸遊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1)은 1692년 8월 오관산 절제의 제관으로 차출되었을 때 오관산의 대흥사에서 지은 시이다. 이 시에는 序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 시를 짓게 된 계기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최석항이 대흥사에 도착했을 때 克嶺 스님이 최석정이 江西寺에서 준 시권 한 축을 가지고 와서 최석정이 지었던 시에 화답해주기를 요청해서 지어준 것이라고 하였다.³⁰⁾ 수련에서 최석항은 자신이 가을산에서 정취를 느끼며 유람을 즐기고 있지만 이것 역시 관직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련~미련은 자신이 대흥사에서 극령 스님을 만난 것을 淸遊라고 생각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련은 자신과 극령 스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석항은 세상의 일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역량이 출중하고 佛法에도 아주 편안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세상 일에 흥미가 없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스님은 자신이 귀의한 불가에서 안

‘偶因佳境博淸遊’도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 ‘淸遊’가 쓰인 구절이 대체로 비슷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30) 崔錫恒, 「題克嶺上人禪卷」, 『損窩遺稿』 卷3, “壬申八月小望, 適差五冠節祭, 平朝乘藍輿, 行十餘里, 到大興寺, 前搃攝克嶺出見, 仍示詩卷一軸, 卽仲氏存窩在江西寺所贈也. 時余與仲氏陪家大人, 自白州任所, 賦歸之路, 歷入壓海樓, 嶺師方住寺中, 得一律而藏之, 要余屬和甚勤義不可辭, 書此以贈.”

정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럽다고 표현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이전에 극령 스님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이전에 만났던 기억은序에 보이는 것처럼 강서사에서 만났던 것인데, 이때 아마도 뱃놀이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즐거웠던 기억을 추억하며 절에서 만나 한번 웃으니 지난 회포가 넓어서 거둘 수 없다고 하였다. 이전에 만나 뱃놀이를 했던 기억이 현재까지 이어져 이것을 하나의 淸遊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스님은 속세의 연을 떨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스님과 만난 인연을 ‘맑은 유람[淸遊]’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는 1705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당시 평안남도 慈山에 위치한 文城館에서 順安 縣令을 지낸 李伯瞻이라는 인물에게 화답하여 지은 시이다. 최석항은 수련에서 자신이 서쪽 변방의 제일가는 고을에서 맑은 유람을 즐기고 있다고 하였다. 1절에서 관서 암행어사로 평안도를 다니며 지은 시에서도 ‘邊城’, ‘邊頭’, ‘關塞’, ‘關防’ 등 변방을 지칭하는 시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西塞關防’이라고 하여 변방을 말하는 것처럼 쓰이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지은 시들은 모두 압록강가의 의주와 강계 등의 국경지역에서 지은 시이다. 반면 이 시는 평안남도 慈山에서 지은 시로 서북지역을 말하는 상투적인 시어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석항은 이 시에서 이백첩과 시를 수창하는 이 순간을 ‘맑은 유람[淸遊]’을 누리는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백첩과 무산의 비구름이나 태백산의 안개와 노을 같은 것들을 시 속에 담아내며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지금 있는 곳은 비록 관아이지만 무산과 태백산을 시 속에 담아내며 그 곳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방관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유람을 한다거나 풍류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³¹⁾ 최석항은 이백첩과 시를 수창하는 이 사소한 순간을 하나의 풍류로 느끼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이런 풍류를 즐기는 순간을 가지게 되니 그제서야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환기시킨다. 최석항은 자신이 비록 관아에 있지만 이백점과 시를 지으며 무산과 태백산 등 자신이 가보지 못한 산들을 눈 앞에 보이는 양 생동감있게 떠올리고 그것을 하나의 ‘맑은 유람[淸遊]’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3)은 1715년 경기도 관찰사로 경기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에 포천의 白鷺洲를 지나면서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는 타인과의 유대는 드러나지 않지만 백로주의 맑고 청정한 풍경을 묘사하였다. 백로주는 永平 8경 중의 하나로 알려진 명승지로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서 시를 지었는데, 최석항이 이 시를 지을 때 白洲 李明漢과 龍洲 趙綱의 절구가 벽에 써있었다고 한다.³²⁾ 최석항도 이처럼 이름난 명승지에 우연히 부름을 받아 맑은 유람을 즐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유람을 이처럼 이름난 곳에 오게된 것도 관직을 맡은 덕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함련에서는 백로주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물가에는 층진 벼랑에 가파른 바위가 우뚝 서 있고, 강물을 두줄기로 나뉘어 흐른다고 하였다. 백로주라는 이름은 이백의 시구 ‘두 물줄기는 백로주에서 나뉘 어지네[二水中分白鷺洲]’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인데, 이 시의 4구는 이백의 시구를 떠올리게 한다. 함련에서 백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면 경련에서는 백로주의 뛰어난 풍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 공간의 풍경을 곧장 보여주지는 않지만 나그네들은 여기

31) 「仙樓酬唱詩跋」에서도 평안도 관찰사의 임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정협과 강선루와 비류강을 유람하면서 “이는 서쪽으로 온 뒤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此殆西來後未嘗有也]”라고 하여 평안도 관찰사를 맡으면서 특별한 유람을 즐긴 적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32) 崔錫恒, 「白鷺洲口占」, 『損窩遺稿』 卷4, “壁上, 有白洲龍洲絕句.”

에 집 터를 잡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조물주는 이 곳에서 다듬고 조각하는 공력을 다 들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백로주가 사람들이 모두 탐을 내고 신도 애착을 가지고 만든 공간임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최석항은 관료의 직분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곧장 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곳에서 반나절의 시간도 보낼 수 없음을 아쉬워 하고 있다. 이는 지방관의 명을 받아 이 곳에서 유람을 하는 기회를 얻어 기쁘지만, 일로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아쉬워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바위 위 열은 그들은 앉은 자리를 지나고	輕陰石上坐來移
눈에 드는 봄 경치는 면면이 기이한데	入眼春容面面奇
맑은 유람 우연히 즐기니 진실로 분에 넘치고	偶辨清遊眞不分
좋은 경치 만날 때마다 홀로 보내는 시간 많아	每逢佳境獨多時
구름 낀 벼랑 산책하니 이끼가 나막신에 젖어들고	雲崖散步苔侵屐
대숲의 시내에서 시 지으니 비가 잔에 가득해	竹澗題詩雨滿卮
부들자리에 누워 세상 걱정을 잊으니	一臥蒲團銷世慮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잠시 머무르게 만드네	故教歸旆暫淹遲 ³³⁾

이 시는 최석항이 1701년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星州 佛靈山の 雙溪寺 學士堂에서 敬賢이라는 스님에게 주기 위해 지은 시이다. 학사당은 신라의 최치원이 지냈던 곳으로 이름이 난 곳이다. 이 시에서는 최치원을 의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신선이 되어 떠났다는 최치원이 지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공간의 특별함을 환기시킨다. 이 시의 수련에서 최석항은 학사당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다. 앉은

33) 崔錫恒, 「雙溪學士堂, 又次前韻, 贈敬賢上人」, 『損窩遺稿』 卷4.

자리에서 그들이 옮겨갈 때까지 오랫동안 머무르며 면면이 새로운 봄 경치를 감상한다. 최석항은 이처럼 봄경치를 완상하는 여유를 분에 넘치는 ‘맑은 유람[淸遊]’이라고 하였다. 분에 넘친다고 한 것은 자신이 관찰사로 경상도로 와서 운이 좋게 즐기게 된 유람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지방관을 맡은 것이 아니라면 혼자 이곳까지 올 일이 없었을 것임을 의식한 것이다. 경련에서 최석항은 학사당 주변을 산책하고 시를 지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산책하면서 이끼가 나막신에 젖어든다고 표현한 것이나 시를 지으면서 비가 잔에 가득 찬다고 한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고 최석항이 이 곳에서 한참의 여유를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유는 미련에까지 이어진다. 부들자리에 누워 세상 걱정을 잊으면서 돌아갈 일을 굳이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최치원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점이나 세상 걱정을 잊었다고 한 것은 이 곳에서 느껴지는 세상과의 단절감을 강조한 것이고, 이로써 이곳의 맑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시에서 敬賢스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를 이 스님에게 주기 위해 지었다는 것은 이 곳의 청정함과 이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곧바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님과의 관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최석항이 淸遊를 쓰는 경우는 주로 그 곳이 세상과는 단절된 맑고 청정한 공간이다. 시를 짓는 그 공간이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시 속에서 담아내고 떠올리는 공간은 그러한 곳으로 보인다. 그러한 공간에서 타인과의 유대가 담겨있는 경우에 대체로 淸遊를 쓰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淸遊를 얻은 것은 우연히 부림을 받은 덕분임을 유사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본고는 유람문화가 유행하던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을 살았던 문인 가운데 한명인 최석항이 가지고 있었던 유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석항은 45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숙종과 경종대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였고, 그 속에서 좌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다. 때문에 그의 삶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인식이 시 속에서도 드러난다. 최석항은 10여 차례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지방으로 파견되는 일을 맡아 지방의 물색을 경험하고 그곳의 산수를 구경할 수 있었다. 최석항은 노년에 자신의 글에서 금강산을 항상 꿈꾸었다고 하면서 유람에 대한 열망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석항이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임지를 벗어나는 경우는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으며, 특정 지역을 장시간 유람하는 경우는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온천을 다녀오거나 천마산을 잠시 유람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최석항의 유람의 대부분은 북한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최석항이 지은 글에서 그가 생각한 유람의 일면을 조금씩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유람을 했다고 한 것은 옥천의 환선루와 평안도 성천에서 정협과 함께 강선루와 비류강에서 유람을 했던 일이다. 옥천의 환선루는 최석항이 생각한 유람의 아름다움인 그윽함과 광활함이 두루 갖추어진 곳이라고 소개했다. 옥천의 환선루는 최석항이 호서 경시관으로 차출되었을 때와 옥천 군수를 맡았을 때 방문한 곳으로 이곳에 두 차례 방문한 것을 의미 있는 일로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성천에서의 유람 역시 평안도 관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유람이라고 할만한 일을 경험한 것이다.

최석항의 유람에 대한 인식은 그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

서는 그가 가진 유람에 대한 인식을 효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遊’의 형식을 가진 시어를 범주화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損窩遺稿』에는 壯遊와 淸遊가 다른 시어들에 비해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壯遊가 쓰인 경우는 총 6회인데 그 가운데 4번이 관서 암행어사 관서지역을 엄찰할 당시 압록강변에 위치한 평안북도 의주와 강계 지역과 같은 변방 지역에서 지어진 것이다. 다른 두 수의 시가 있지만 본고에는 변방에서 한 시기에 지은 시에서 유독 한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최석항은 변방에서 스산한 분위기와 낯은 날씨를 경험하지만 이것을 모두 壯遊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壯遊 역시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아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에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淸遊는 한 시기에 다수의 시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지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淸遊의 시어가 사용되는 구절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8수 가운데 5수에서 淸遊라는 시어가 비슷한 구조 속에서 사용되었다. 이 시어가 사용된 공간은 대체로 깨끗한 자연의 모습이 부각되는 장소이거나 서원이나 사찰과 같이 세상과는 격리된 공간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시에서 세상과 떨어진 장소를 그려내기도 한다. 이 공간에서 최석항은 혼자만의 幽興을 즐기기도 하는 타인과의 유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시가 특정 대상에 대한 화답시라거나 증시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淸遊의 시어가 사용된 시에서는 壯遊만큼의 책임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유람을 할 수 있었다는 의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최석항이 인식한 유람은 모두 그 바탕에 관직 생활이 크게 자

리하고 있다. 관직 생활을 통해 유람을 할 수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지를 벗어나 장시간을 유람하는 일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관직 생활로 이동하면서 보고 겪은 일을 유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두 차례 관직 생활로 인해 옥천에 부임하면서 환선루를 들르게 되는 것을 유람을 이었다고 표현한 것이나, 성천에서 정협과의 유람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고 있는 것 또한 최석항의 이와 같은 유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석항의 이와 같은 유람에 대한 인식은 환로에 대한 피로로 인해 휴식과 유흥을 위해 여행을 떠난 당시의 문인들과는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최석항이 평안도와 경상도 등지에 부임하면서 장기간의 여행을 하지 않았던 것도 관료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서 “세상일이 사람을 몰아 잡시도 머물러 두지 않아서이지[世故驅人不暫留]”, “수레 만나절 머무름을 허락하지 않네[不許幃帷半日留]”라는 구절이 보이는 것도 관료로서의 책임감에 유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최석항의 유람에 대한 인식은 당대의 일반적인 유람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최석항이 가진 인식 가운데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을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소론 계열 문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람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해서 다시 살펴본다면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 시기 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람에 대한 인식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崔錫恒, 『損窩遺稿』

崔錫鼎, 『明谷集』

『肅宗實錄』

김효정, 「損窩 崔錫恒의 卽興詩 연구 - ‘口號’류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 12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관료문인의 산수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유명석, 「損窩 崔錫恒의 聯句詩 研究 - 詩會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유진희, 「昆侖 崔昌大의 기행시 일고찰 - 『損窩遺稿』 소재 昆侖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1, 민족어문학회, 2021.

윤재환, 「損窩 崔錫恒 「請對」의 설득 전략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2020.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Abstract

Sonwa Choi Seok-hang's perception of traveling

- Focusing on Jangyu(壯遊) and Chungyu(淸遊) -

Yoo, Jin-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raveling by Sonwa Choi Seok-hang, a person who lived in the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ies. A was also embroiled in a political dispute while serving in government office for 45 years, but he lived a political life that rose to Jwauijeong. Although he was appointed as a district official or dispatched to the province approximately 10 times, there is no record of long-term tours to a specific area such any other literary person. Thus, the focus was on how A perceived the traveling, and the background of his perception of the cruise was examined through his political life and travel history. Additionally, poems in which poems in the form of '～yu (遊)' are inserted were categorized. Through this, we focused on the poems Jangyu (壯遊) and Chungyu (淸遊), which were used relatively frequently, to find out his perception of traveling. All of the traveling recognized by Choi Seok-hang point to a major influence of government life as their basis. At this point, there is a certain difference from ordinary contemporary writers who chose to travel to relieve fatigue caused by official life and rest.

Key Words : Choi Seok-hang, Travel, Jangyu (壯遊), Chungyu (淸遊)

유진희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자우편 : pt5670@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02월 13일 투고되어
2022년 03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3월 28일 게재 확정됨.